07
2025

재외동포의 창

특집 _ 재외동포청-한국정치학회 공동 리셉션
"미국 인종 따라 추방 결정, 심각한 인권문제 될수도"
"권위주의 유산 극복은 진행형…극복 안 하면 퇴행"
기획 _ "교육자 자긍심 되새긴"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폐막
한글 지킴이로 핀 보람 37년…조영애 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장
"한국어 교육은 제 소명"…백경숙 아르센예브 한글학교장
이달의 재외동포 _ '사할린 동포 귀환운동 선구자' 박노학 전 회장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책에서 배울 점

이강근
이스라엘한인회장
(예루살렘 유대학연구소장)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6% 이상이 본토를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다. 교통의 발달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제 국가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를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정책은 외교부, 이민흡수부, 유대인청(Jewish Agency), 세계 시온주의 기구(WZO) 등 4개의 부처 및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추진한다. 각 기관은 역할에 따라 교육 기획, 프로그램 운영, 외교적 연결, 정착 지원 등을 분담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해외 디아스포라 청소년의 정체성 강화와 귀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WZO는 시온주의 교육의 이념과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전 세계 청소년에게 유대 정체성을 가르친다. 유대인청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18~26세 유대 청년에게 10일간 무료 이스라엘 방문, 5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교육을 실행한다.

외교부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의 공식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프로그램 홍보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민흡수부는 귀환(알리야)을 결심한 청년들을 위한 언어 교육,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정체성 고취 → 귀환 → 정착'의 연결 고리를 완성한다.

이 외에도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유대인 올림픽'이라 불리는 마카비아 경기대회(Maccabiah Games)는 전 세계 유대인 선수들이 참가해 유대인의 연대감과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각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아스포라를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정책은 한국에 다섯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정체성의 국가 전략화다.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교육, 방문, 귀환(알리야)을 연계해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한국도 재외동포 청소년 프로그램을 '정체성 유지 → 참여 → 기여 → 귀환'의 전략적 흐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유기적 부처 협업이다. 교육, 외교, 귀환 정착 등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부처 간 단절을 해소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청소년 네트워크 형성이다. 이스라엘처럼 방문 이후에도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유지되도록 하고, 국내 청년과의 연결을 통해 인턴십, 창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리더의 역방향 파견이다. 이스라엘의 '슐리힘'처럼 한국도 해외 한글학교와 한인 단체에 청년 리더를 파견해 현지 정체성 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귀환과 정착 연계 정책이다. 이스라엘은 방문 이후 실제 귀환과 정착까지 지원한다. 한국도 언어교육, 장학금, 창업지원 등 장기 정착 유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디아스포라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용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창

차례 CONTENTS

2025. 07

04

10

23

02 창을 열며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책에서 배울 점
이강근 이스라엘한인회장(예루살렘 유대학연구소장)

04 특집 **재외동포청-한국정치학회 공동 리셉션**
10개국 한인 정치학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미국 인종 따라 추방 결정, 심각한 인권문제 될수도"
"권위주의 유산 극복은 진행형…극복 안 하면 퇴행"

10 기획 **2025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교육자 자긍심 되새긴"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폐막
한글 지킴이로 핀 보람 37년…조영애 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장
"한국어 교육은 제 소명"…백경숙 아르센예브 한글학교장

16 이달의 재외동포 '사할린 동포 귀환운동 선구자' 박노학 전 회장

18 초대석 고려인 3세 남 빅토르 러시아 국립대 타슈켄트 캠퍼스 총장

20 글로벌 코리안 미국 풋볼 스타 하인즈 워드 "꿈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뤄집니다"

22 OKA 뉴스 고려인 청소년들 "한국 학생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최태성, 재외동포청 홍보대사로 첫 강연

24 뉴스속으로 재미동포 미셸 강, 프랑스 프로축구 리옹도 이끈다

25 동포소식 "고향 군산 그리워"…미국서 온 91세 할머니 손편지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가자 모집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 · 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0개국 한인 정치학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재외동포청,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 참가 100여명 초청해 리셉션 개최

14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에 참가한 주요 정치학자들. 왼쪽부터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이태구 미국 하버드대 교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파블로 오냐테 세계정치학회장(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 김달중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전 세계정치학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14일 '정치학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 정치학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년마다 치러지는 이 대회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한국은 1997년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2번 유치했다. 현재 세계정치학회 회장은 스페인 공립종합대학교인 발렌시아대 파블로 오냐테 교수가 맡고 있다.

이번 서울 대회는 지난 7월 1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막했으며 80여 개국 3천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 정치학자는 이태구 미국정치학회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 등 2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170여 명이다.

재외동포청은 14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센터에서 재외동포 정치학자들과 연구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재외동포 정치학자 초청 공식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리셉션은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정치학자와 한국 정부 간 채널을 구축하고, 동포 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

적 확장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리셉션은 김범수 회장의 개회사, 이상덕 청장의 환영사, 파블로 오냐테 회장의 축사, 참가자를 대표해 이태구 회장(하버드대 교수)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덕 청장은 "작년 재외동포청장 취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우수하고 헌신적인 동포들을 만나며 큰 감명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정체성(identity), 연결성(connectivity), 공동번영(mutual prosperity)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한민족 정체성 보존이 핵심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 정치학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각국 한인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알리는 여론 형성자(opinion leader)이자 교육자로서 차세대에게 한국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 학자들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 정치학자, 차세대에 정체성 심어주는 역할"

파블로 오냐테 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한인 정치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번 리셉션을 개최한 재외동포청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태구 회장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역사는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현재 미국 내 한인들은 여전히 시민권, 의료보험 등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며 "재외동포청이야말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정부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사 후 오찬 및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재외동포 정치학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1902년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과 사랑을 음악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 '하와이 연가'(감독 이진영)를 통해 동포 정체성에 대한 감수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영화를 본 후 "한국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동포 정체성과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리셉션을 계기로 정책 수요자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재외동포 정치학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외동포 학술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 리셉션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개막연설에서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K-민주주의, 세계 민주시민의 등불이자 이정표"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장엄한 '빛의 혁명'을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자 전 세계의 것이다.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시민의 등불이자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 어디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자,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창

이태구 미국정치학회장

"미국 인종 따라 추방 결정, 심각한 인권문제 될수도"

"10년간 두 명의 대통령 탄핵…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에 감탄"

이태구 미국정치학회장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적 희망보다도 생존의 위협이 행동을 이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종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추방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도 있어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이태구 미국정치학회 회장(하버드대 인문학부 교수)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 한국정치학회 공동 리셉션에 참석해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부모님이 생전에 선택했던 미국 이민의 길이 이 자리에까지 이어졌다는 생각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정치적 위협이 참여로 이어져…보편 정책 절실"

이 회장은 UC버클리 로스쿨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년 가까이 후학을 길러온 정치학자다. 연방 센서스국의 자문위원, 아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AAPI) 시민참여연대 수석 펠로, 미주한인정치연합(KAPA)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인종과 민족, 이주와 정체성, 정치 ·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집중 연구해 왔다.

그는 먼저 오랫동안 한국계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가 낮았던 이유로 "양당 모두 아시아계를 유권자로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인, 흑인, 라티노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해 있지만, 아시아계는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정치 참여는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그러나 최근 10~20년 사이 이러한 흐름에는 변화가 일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에 장기 정착하면서 경제 · 교육적 성공을 넘어 정치적 권리와 영향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정치 참여가 곧 새로운 사회에서 소속감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혐오범죄와 인종차별 증가가 정치 참여의 강력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아시아계 대상

14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 한국정치학회 공동 리셉션에 참석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의 혐오가 증가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됐다"며 "NGO와 지역단체들의 지원으로 한국계와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희망보다도 생존의 위협이 행동을 이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혐오범죄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심화시키며 정체성 정치의 확산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부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

이 회장은 또한 보편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국의 부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 1%가 하위 20%보다 훨씬 많은 부를 보유한 현실을 지적하며,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건강보험, 교육 정책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 내 서류 미비 등으로 추방 대상인 한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약 20만 명의 한국계가 추방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는 단지 불법체류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인종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추방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도 있어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결책으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한인 커뮤니티의 조직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적극 개입해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현지 한인들도 연대해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면서 국제 동맹 속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이 회장은 차세대에게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정확하게 관찰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앞으로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지난 10년간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생동성과 역동성에 깊이 감탄한다"고 평가했다. 창

홍지연 미국 미시간대 교수

"권위주의 유산 극복은 진행형…극복 안 하면 퇴행"

"'기생충' 처럼, 한국의 모순과 비극 함께 조명하는 게 진정한 세계화"

"제도적 민주화가 곧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권위주의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정치적 퇴행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홍지연(46)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교수가 14일 재외동포청과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계 한인 정치학자 초청 리셉션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세계정치학회 총회는 80여개국의 정치학자 3천500여명이 모여 최근 세계 정치의 흐름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사로 '정치학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홍 교수는 권위주의의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정치학자이며, 특히 동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다.

"정당 대표성, 특정 엘리트에 편중…다양성 포용해야"

서울대에서 정치외교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홍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홍콩 과학기술대 사회과학부 교수를 지냈다. 현재 미시간대에서 권위주의 과거의 유산, 정치적 폭력의 장기적인 영향, 권위주의 체제 하 엘리트 행동 및 정부 정책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기금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홍 교수는 한국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권위주의 유산'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권위주의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산'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민주화 이후 제도와 문

홍지연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권위주의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적 퇴행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연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교수가 14일 재외동포청과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계 한인 정치학자 초청 리셉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화, 관행을 바꾸려는 과정 자체가 유산과의 싸움이자 극복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모든 국가가 겪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퇴행과 진보, 굴곡이 함께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의 뿌리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싸우는 중"

이어 "한국의 양당 모두 엘리트 중심 정당 구조를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과 기존 제도권 엘리트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등 특정 관료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의 이념적 대표성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집단을 포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화 시기 권위주의와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구와 달리 한국은 국가 주도의 개발 모델로 성공한 사례"라며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 중심 체제로 전환됐지만, 최근 서구, 특히 미국에서 다시 산업정책을 강화하며 한국 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미·중 경제 전쟁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 정치경제 체제 재구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학의 세계화와 관련해 그는 "한국이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에서 성취한 나라로 주목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학의 목표가 단순한 자랑이어선 안 된다"며 "영화 '기생충'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의 모순과 비극까지도 함께 조명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라고 밝혔다.

"K-컬처 넘어, 한국학의 깊이 있는 세계화 필요"

홍 교수는 또 "디지털 아카이브가 확장되면 한국학 연구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영어 설명이 병기된 자료 확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K-컬처 열풍이 학문적 한국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하다고 봤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학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들에게는 "이미 열려 있는 언어 감각과 사고방식,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뛰어나다"며 "세계 학계와 소통하며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서울 총회에서 '새마을 운동이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농촌의 투표 성향에 미친 영향'과 '양극화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창

“교육자 자긍심 되새긴”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폐막

46개국 교사들, AI 기반 수업 설계 · 다문화 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큰 호응
이상덕 동포청장 “한글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을 기다려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되새겼다”는 소감이 한목소리로 모인 ‘2025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한 이번 연수에는 46개국 234명의 한글학교 교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올해 처음 실시한 ‘AI 활용 한국어 교수법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수료식은 일주일간의 연수 장면을 모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지역별 대표 소감 발표, ‘나에게 한글학교란’ 엽서 쓰기 이벤트 우수상 및 행운상 등 다양한 시상식과 수료증 수여, 단체 및 ‘인생네컷’ 사진 찍기 등으로 진행됐다.

‘한글로 쓰고 마음으로 잇다’ 주제로 열려

마다카스카르 한글학교 김준환 교사는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새기고, 세계 각지에서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권영남 교사는 “연수를 개최한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모국과의 정과 유대를 깊이 체감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AI 기반 수업 설계와 다문화 교육 현장 체험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엽서 쓰기 이벤트에서는 레딩 한글학교 정경선 교장이 ‘나에게 한글학교는 마을의 공동텃밭이다. 학부모, 선생님, 지역 한인이 함께 재외동포 차세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터’라는 글을 남겨 우수상을 받았다.

그 밖에도 올해 연수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글 교육’ 특강을 비롯해 수준별 한국어 말하기 · 쓰기 교수법 워크숍, 선생님들의 마음 치료를 위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한 46개국 234명의 교사가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개막식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강연, 수업을 살리는 놀이 교육,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관람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서 주목을 받은 참가자는 미국 하와이에서 온 17살 유하늘 · 하별 남매 학생 교사다. 자신을 한강교회의 학생 교사라고 소개한 유하늘 양은 "한국말 이름을 설명할 때마다 제 주변은 잠시 작은 한글학교가 된다"며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만의 한글 이야기를 들려줬다. 유하늘 양은 워싱턴에서 태어나 현재 세계 최초의 한글학교가 설립된 하와이에 거주하며, 신설된 K-한글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17세 보조교사 유하늘 "한글학교는 정체성의 씨앗"

유하늘 양은 이어 "한글학교는 사랑하는 엄마, 존경하는 아빠의 나라 '대한민국의 학교'"라며 "한국어를 잊어가는 많은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유하늘의 동생, 15세 유하별 학생 교사도 "한글을 잘 읽고 듣고 쓰지만 말하기는 어렵다"며 "한글학교에서 더 배워서 영어가 서툰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래 친구들에게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들 남매의 발표는 한글에 대한 애정과 한국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37년째 한글학교에서 봉사해 이번 참가자 중 최장기 근속 교사인 조영애 교장은 "이번 연수가 서로의 열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교실로 돌아갈 힘을 얻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강연은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생들은 교사들을 위해 가야금 5중주와 해금 6중주로 '아라리요'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연주해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상덕 청장은 수료식에서 "한글학교는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 · 역사 정체성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어린 학생들이 일주일을 기다려서 가고 싶어 하는 즐거운 주말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내린 빗속에서도 모두 건강히 일정을 마치셔서 기쁘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김혜경 여사 "교사들 모국과 동포사회 깊게 연결"

재외동포청은 연수 기간에 각 지역 담당자와 교사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앞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초청연수 개회식에는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축사를 보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머나먼 타국에서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일은 언어교육을 넘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우리 정체성을 전해주는 과정"이라면서 "주말 한글학교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한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낯선 땅의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연결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만들어 주시는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글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더욱 깊게 연결되고 있음을 기억하겠다"고 격려했다. 창

한글 지킴이로 핀 보람 37년
조영애 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장

“사랑 따라 시작된 이민…한글학교는 제 삶이 됐어요”
“한글학교는 뿌리 교육의 산실…한글학교 교사 된 제자들 뿌듯”

조영애 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 교장

“한글학교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을 하나만 꼽긴 어렵습니다. 매 순간이 보람이었기에 37년을 한결같이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주최 한글학교 교사 연수 개막식에서 참가자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조영애(61) 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7년을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한글학교 교사 중 최장기 활동이라는 이력을 지닌 조 교장의 삶에는, 사랑을 따라 떠난 이역만리에서 ‘한글 지킴이’로 우뚝 선 여정이 담겨 있다.

오스트리아 유학 대신 호주 택한 청춘

대학생 시절, 연인이었던 남자친구가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떠나며 뜻밖의 이별을 겪은 그는, 우연한 재회 끝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호주 이민을 결심했다.

“꿈꿔오던 오스트리아 빈으로의 유학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눈물을 머금은 채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 삶 전체가 된 것이 바로 한글학교 활동이에요.”

호주 멜버른에 정착한 그는 1988년 한글학교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91년 문을 연 웨이블리한글학교를 20여 명 학생과 함께 일구기 시작했다. 이후 이 학교는 현재 학생 수 300명이 넘는 호주의 대표 한글학교로 성장했다.

조 교장은 “한글학교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정체성을 키우는 뿌리 교육의 산실”이라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자긍심을 갖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에너지를 얻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학교 교사가 된 제자들을 보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교사는 눈빛으로 가르친다”…조영애 교장의 철학

호주 한인음악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전공인 작곡을 살려 학교 내 어린이합창단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음악회 수익금 6천 달러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돕는 데 기부했다. 조 교장은 “학교 재정도 넉넉하진 않지만, 전쟁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아이들도 신나게 동참했다”고 전했다.

오는 27일에는 6 · 25전쟁 75주년을 기념해 호주 전쟁기념관에서 참전용사 초청 음악회도 준비하고 있다.

조 교장은 “37년간 매주 일요일 수업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주말에 가족 여행을 한 번 못 갔다”며 “남편이 ‘주말학교에 미쳤다’고 할 정도”라며 웃었다.

그는 한글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와

지난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주최 한글학교 교사 연수 개막식에서 조영애 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 교장이 참가자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단한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즐겁게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게 교사 역할의 출발점입니다."

웨이블리한글학교는 태권도, 축구, K팝 댄스, 합창단 등 특별활동반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는 "한글 배우기 싫다던 아이들도 특별활동 때문에 일찍 나오는 걸 보면 흐뭇하다"고 말했다.

조 교장은 "한글학교는 교사가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교실 환경보다 중요한 건 교사의 눈빛과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37년이 모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학부모들의 신뢰와 헌신적인 교사들의 노력이 큰 힘"이라고도 했다.

작곡 전공 살려 어린이 합창단 지휘

사랑을 찾아 떠난 이민 길에서 한글 교육에 평생을 바친 그녀의 삶은 재외 동포 사회에서 한글이 단순한 언어를 넘어, 한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의 '스터디 코리안' 콘텐츠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유용한 수업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 교장은 전 세계 한인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어디에 살든 여러분은 한국인의 피를 이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하세요. 절대 기죽지 말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조영애 교장처럼 헌신적인 재외동포 교사들이 있기에, 해외 곳곳에서 한글의 뿌리가 굳건히 내려지고 있다. 창

지난 5월 25일 호주 멜버른 페더레이션 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웨이블리한글학교 합창단이 조영애 교장의 지휘로 한국과 호주 국가를 연주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제 소명” 백경숙 아르센예브 한글학교장

낯선 땅 러시아서 28년 “한글 · 한국문화 씨앗 심어요”
국영 유치원과 함께한 실험…러시아서 유일한 협력 모델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자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28년간 한국어를 가르쳐 온 백경숙(66) 아르센예브 한글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 내내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담담히 풀어냈다.

지난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재외동포청 주최 ‘2025년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 참가한 백경숙(66) 아르센예브 한글학교 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8년간 러시아 연해주 여러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온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 한글학교 설립 과정부터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아르센예브 한글학교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태동했다.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이 학교 설립을 지원했고, 아르센예브시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에서 그를 교장으로 추대했다. 러시아 국적자이자 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교사 출신으로 현지인 남편을 둔 백 교장이 학교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였다.

이 학교의 가장 독특한 성과 중 하나는 국영 유치원과의 협력이다. 현재 이 지역 국영 유치원 4개 반, 약 100명의 유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러시아 전역에서 유일한 한국어 특화 유치원이다.

“설 행사에서 한복 입기, 세배, 한국 전통 놀이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정식으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백경숙 러시아 아르센예브 한글학교장

흥미로운 점은 한글학교 청소년반 학생들이 이 유치원 수업에 ‘실습교사’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백 교장은 “책임감을 느끼며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자신감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전환점…온라인 수업으로 확장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였다. 백 교장은 한글학교 운영을 과감히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걱정도 많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멀리 외곽 지역에 살면서 그동안 통학이 어려웠던 고려인동포 청소년반과 동포 성인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지역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된 셈이죠.”

현재 유치반은 대면 수업을 유지하고, 청소년반과 성인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외에도 매달 한 차례 통합 문화 수업을 열어 전 세대가

지난 설날에 백경숙 교장이 한복을 입은 아르센예브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세배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함께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백 교장은 "이 시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여름 열리는 '한국문화 체험 캠프'는 2년 이상 한국어를 배운 청소년반과 동포 성인반이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행사다.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과 한국교육원,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연해주 한인회 등에서 지원 · 협조로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

백 교장은 "2019년 3월 학생들이 한국문화 체험 방문시 관광공사 덕분에 롯데월드 입장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죠"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국의 사위, 러시아의 며느리'…민간 외교관 역할

백 교장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2018년 이낙연 총리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동포대표로 동포간담회에서 활동 사례를 발표 했다. 당시 '한국의 사위, 러시아의 며느리'로 소개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07년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며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주목받은 그녀는, 러시아 내에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총영사관에서도 신문 기사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전했다.

백 교장의 활발한 활동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 신문과 TV 방송을 통해서도 널리 소개됐다. 그는 특히 "둘로 갈라져 있던 아르세니예프시 고려인협회가 한글학교를 통해 하나로 뭉쳤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해주 한인 사업가의 박물관 설치 가구 기증과 영사관, 교육원, 한인들, 한국 지인들의 소장품을 기증 받아 유아 눈높이이에 맞는 한국문화박물관을 유치반이 공부하는 국영유치원도 개관했다.

"둘로 갈라진 고려인협회 하나로 뭉쳐 큰 보람"

백 교장은 아르센예브 한글학교 우수 운영사례로 선정돼 이번 연수에서 46개국에서 온 234명의 한글학교 교사 앞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백 교장은 "한국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걸어왔다"며 "때론 눈물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한글을 쓰고, 한국어로 말할 때면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학교 운영은 교육뿐 아니라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32세 때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며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다. 1년 만에 회복 후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아교육, 사회교육학,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했고, 사회심리상담사 자격도 갖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한글학교 운영에 쏟아붓고 있다.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최선을 다하자는 게 신념"이라고 전했다.

백 교장은 재외동포청이 7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사할린 동포 모국 귀환에 앞장선 박노학 선생을 선정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매달 모국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들을 기리는 사업은 700만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인터뷰를 끝내며 백 교장은 조심스레 소망을 밝혔다.

"우리 한글학교만의 교실,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포 아이들과 러시아 아이들이 함께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한 · 러 우정문화원'을 만드는 것이 여생의 마지막 꿈이에요" 창

‘사할린 동포 귀환운동 선구자’ 박노학 전 회장

일본서 귀환 운동…7천여명 수록 ‘박노학 명부’로 사할린 동포 존재 알려
편지 중개, 가족 상봉 주선 등 교류에 앞장…영주귀국 제도화 초석 마련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을 주도하고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헌신한 박노학(1914~1988) 전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을 선정했다.

1914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인 1943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박 전 회장은 1945년 해방 후에도 무국적 상태로 사할린에서 억류된 상태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일본인과 결혼해 1958년 일본으로 귀환해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고국 귀환 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박노학 전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장

“편지 한 통이 희망”… 이산가족 상봉 물꼬 터

박 전 회장은 일본 정착 후 자신의 단칸방을 사무실 삼아 귀환 운동단체인 ‘화태(사할린) 억류귀환한국인회’를 창설했다.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탄원서와 진정서를 작성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던 동포들을 위해 그들이 사할린에서 써서 보낸 편지를 한국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한국과 구소련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아 우편을 통한 서신 왕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일본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편지를 받아 이를 다시 한국에 사는 장남 박창규 씨에게 보내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생사 확인, 가족의 근황, 귀환 희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들 편지 한 통 한 통이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사할린 동포의 편지 배달부

사할린 동포들 사이에서 “박노학에게 부탁하면 가족을 찾아준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편지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30여년 동안 박 전 회장 부자(父子)가 전달한 편지는 3만여 통에 달한다.

박 전 회장은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사할린 동포들의 국적 · 지역 · 귀국 희망 형태 등을 기록한 이른바 ‘박노학 명부’를 만들었다.

약 7천명이 수록된 이 명부는 사할린 동포의 귀환 의지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초의 기록물로, 한국과 일본, 구소련 3국의 사할린 동포 관련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됐다.

또한 이 명부는 사할린 동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역사적 사료이자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등을 우선으로 선별하고 입증하는 기준이 됐다.

“일평생 이산가족 연결에 헌신”

그는 사할린 동포의 귀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고국

의 가족과 상봉을 위해 일본 정관계 등 인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의 정치인 등과 협력해 구소련 당국을 설득했고, 1984년 사할린 동포 10명의 일본 방문과 가족 상봉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이는 전후(戰後) 최초의 사할린 동포 공식 출국으로 귀환 운동의 물꼬가 됐다.

정부, 1988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박 전 회장은 초청 대상자 선별, 숙소 마련, 통역 등을 모두 자비로 도맡았으며, 그의 좁은 다다미방은 이산가족이 눈물로 다시 만나는 공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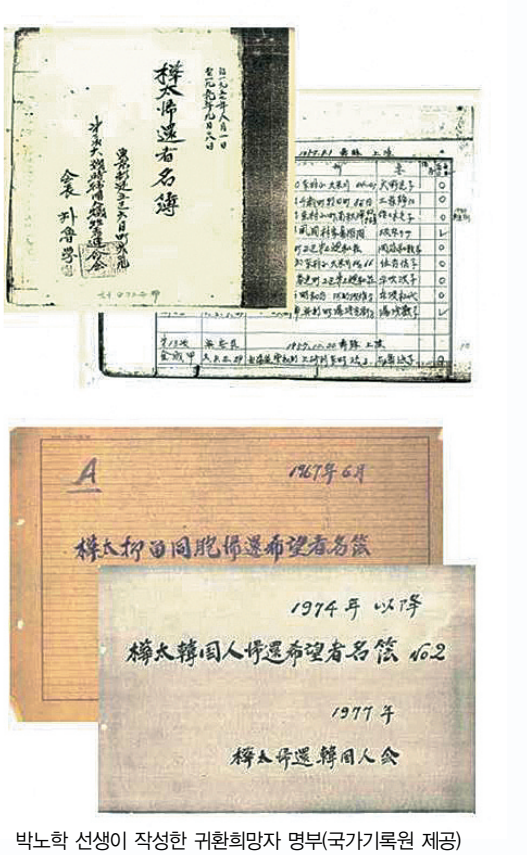
이후 그는 한국의 가족들이 일본으로 오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사할린 동포들이 일본을 경유해 모국을 방문하는 상봉 방식을 제안했다. 1988년 6월 일본 의원단이 구소련을 방문해 이 같은 방식을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일본을 경유한 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성사됐다.

이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사할린 동포들의 가족 상봉은 오늘날 우리 정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으로 연결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8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박노학의 방, 눈물의 재회가 이뤄진 곳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박노학 전 회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진 못한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식민 피해,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은 이들을 위로한 진정한 선구자였다"며 "일평생을 바쳐 사할린 동포사에 한 획을 그은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3월 김평진(1926~2007)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4월 홍명기(1934~2021)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5월 임천택(1903~1985) 독립운동 지사, 6월 박병헌(1928~2011) 전 재일민단 단장). 창



박노학 선생이 작성한 귀환희망자 명부(국가기록원 제공)

사할린 동포들이 박노학 선생에게 보낸 편지와 작성된 명부(국가기록원 제공)

“우리말과 문화 모르면 뿌리없는 나무와 같아요”

동포 장학생 출신 고려인 3세 남 빅토르 러시아 국립대 타슈켄트 캠퍼스 총장

“대한민국은 내 뿌리, 그 가치 나누는 게 사명…정체성 지키는 힘은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남 빅토르(49) 러시아 국립 헤르젠 사범대 타슈켄트 캠퍼스 총장은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제 뿌리이며, 그 가치를 나누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일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인 그는 현지 고려인 학교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마쳤다. 이후 1993년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교육과에 진학해 1998년 졸업과 동시에 재외동포청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그는 한국 유학 중 경희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이후 서울대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그는 유학 초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 교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니 길이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그는 모교인 니자미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과 교수직을 시작했고, 2018년 새로 문을 연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발탁됐다. 신설 대학의 총장직은 도전이었지만, 그는 6년간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이뤄냈다.

“첫째는 캠퍼스 리모델링, 둘째는 학생 모집과 학과 개설, 셋째는 교수진 구성입니다. 리모델링은 3년이 걸렸고,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부지를 받아 IT 캠퍼스도 열 수 있었죠.”

처음 400명이었던 학생 수는 2천 명까지 늘었다. 9개 학과가 개설됐고, 교수진도 한국을 오가며 구축했다. 남 총장은 “급여 수준을 높여 유능한 교수들을 영입했고, 이는 곧 학생 유치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총리실 발령으로 지난해 7월 헤르젠대 타슈켄트 캠퍼스 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모국에서 공부한 뒤, 학문과 교육 현장을 지키며 마침내 거주국을 대표하는 교육자로 성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남 빅토르 러시아 헤르젠 사범대 타슈켄트 캠퍼스 총장

장학생에서 총장까지…고려인 3세의 교육 리더십

헤르젠대 타슈켄트 캠퍼스는 러-우즈베크 양국 합작 교육기관이다. 그는 “현재 1천 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며, 9층 강의동과 기숙사 건물이 오는 9월 완공되면 정원이 3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총장은 향후 한국어학과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양국 협의를 통해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총장은 현재 고려인 청소년들은 진로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며 “대학교 졸업이 곧바로 안정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제 정

세도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녀 교육에서도 한국어와 문화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뿌리 지키기의 핵심으로 꼽았다.

"우리말과 문화를 알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저도 늦게 한국어를 배웠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고 있어요."

이어 "재외동포청의 모국 초청 연수는 뿌리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적극 참여를 권장했다.

"좋아하는 일, 포기하지 마세요"

한류 열풍은 현지에서도 뜨겁다고 전했다. 부천대학교 총장 시절,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K-POP 콘서트 등 활발한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들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흥미를 느끼고,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며 "이러한 관심을 학문적으로 연결해야 교육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차세대 동포 초청 연수와 장학사업, 한국어 교사 연수와 파견 등은 현지 동포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차세대가 모국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끝으로 그는 동포 차세대들을 향해 조언했다.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스스로 찾아옵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개척하길 바랍니다." 창

지난 2023년 남 빅토르 총장이 타슈켄트 부천대 총장 재직 시 직접 기획한 K-POP 콘서트에서 부천대 학생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타슈켄트 부천대 제1회 졸업식

지난 2023년 한국의 자생의료재단과 부천대가 함께 의료봉사를 한 후 자생의료재단이 부천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왼쪽에서 3번째가 남 총장.

“꿈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뤄집니다”

미국 풋볼 스타 하인즈 워드 8년만에 방한…다문화 청소년에 희망 메시지

“다문화 아이들이 더 큰 꿈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 나의 역할”

지난달 29일 경기 부천시립박물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미국 풋볼 스타 하인즈 워드.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슈퍼볼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늘 같은 마음이었죠.”

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미국 프로풋볼(NFL) 슈퍼볼 MVP 출신의 한국계 미식축구 전설 하인즈 워드(49)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다문화 ·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인즈 워드는 사회복지법인 한국펄벅재단(이사장 류진)이 최근 경기 부천시립박물관 어울림 강당에서 개최한 ‘2025 하인즈 워드와 함께하는 희망의 터치다운’ 행사에 참석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

하인즈 워드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미식축구 기본 동작을 배우고,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와 ‘꿈’을 주제로 한 협동 미술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는 “아이들과 땀 흘리고 웃으며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며 “이 순간들이 아이들 마음에 작은 용기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즈 워드와 함께 참석한 가족들. 왼쪽부터 하인즈 워드 어머니 김영희 여사, 하인즈 워드, 딸 론딘 워드, 아내 린제이 워드, 장모 재키 게오갈라스.

하인즈 워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혼혈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 따돌림과 차별을 겪었다"며 "늘 외로웠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견디신 분이다. 일부 한국인들은 '연탄 엄마'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한국에서 홀로 미국에 건너와 편견 속에서도 절 키워냈다"며 "그런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며 살아왔고, 저 역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다"며 "혼혈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다문화적 배경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하인즈 워드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1998년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입단한 그는 와이드 리시버로 팀의 중심이 되었고, 2006년 슈퍼볼 MVP를 수상하며 아시아계 최초의 수상자로 역사를 썼다. 이후 2009년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이끈 뒤, 2013년에는 철인3종경기 완주에도 성공했다.

펄벅재단 측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부터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며 청소년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 29일 경기 부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린 '2025 하인즈 워드와 함께하는 희망의 터치다운' 행사에서 하인즈 워드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미식 축구 기본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인즈 워드가 다문화 어린이들과 색칠놀이를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더 큰 꿈 꿀 수 있도록 돕겠다"

실제로 그는 2006년부터 펄벅재단과 함께 '하인즈 워드 여행'(Hines Ward Trip)을 기획해 혼혈 아동들의 미국 방문을 지원해왔고, 2010년 어린이날에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함께 다문화 아동 초청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하인즈 워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 나의 역할"이라며 "이번 방한도 미국 스포츠전문채널인 ESPN과 함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알리기 위한 여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참가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라고 전했다. 창

고려인 청소년들 "한국 학생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재외동포청, 고려인 청소년들 초청해 간담회 개최

4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주최 '고려인 청소년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상덕(앞줄 왼쪽서 3번째) 청장을 비롯해 고려인 관련 단체 관계자, 고려인 청소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4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고려인 청소년 30여 명을 초청해 '고려인 청소년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CIS)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뒤 부모와 함께 한국에 중도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들이 겪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안성시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이사장 소학섭)에 재학 중인 고려인 고교생들과 함께 안성교육지원청, 아시아발전재단, 고려인 글로벌네트워크(KGN), 경희대 산학협력단, 고려인 청소년교육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언어, 문화, 교육, 진로 등 여러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차별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안나 학생은 "다른 한국 학생들처럼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싶은데, 낯선 환경과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 졸업 후 모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이서현 씨는 "정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며 "오늘과 같은 간담회에서 우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큰 위로가 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바람도 제시됐다. 채예진 KGN 이사장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상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학섭 이사장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직접 전달될 기회를 마련해준 데 감사하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오늘 전달된 고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 이기성 정책국장은 지난 11일 충남 아산 호서대에서 열린 '2025 전반기 고려인 청소년교육 협력 협회 포럼'에 참석해 고려인 청소년 교육과 진로 지원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창

최태성, 재외동포청 홍보대사로 첫 강연

14~15일 제주 신성여중 · 새서귀초교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미주 이민사 다룬 영화 '하와이 연가' 상영…이진영 감독도 동행

최태성 동포청 홍보대사가 지난 15일 제주 새서귀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특강을 하고 있다.

"하와이 이민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재외동포는 우리 역사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국사 강사 최태성 씨가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으로 상반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큰별쌤'으로 불리는 최 씨는 14일 신성여자중학교, 15일 새서귀초등학교, 17일 전남 순천 신흥중학교 강연을 끝으로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1903년 미국 하와이로 떠난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와이 연가'(감독 이진영)를 중심으로 미주 한인 이주사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 강사는 영화 속 사진 신부의 삶, 노동 이민 1세대의 고난과 정착기를 설명하며, "재외동포는 국내 역사 교육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이진영 감독이 직접 학생들과 소통에 나서 영화 제작 배경과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나누며 공감을 더했다.

신성여중 김지운(3학년) 학생은 "교과서에서 접하지 못했던 재외동포 역사를 새롭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고, 새서귀초 민하원(6학년) 학생은 "사진신부들의 도전적인 삶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태성 홍보대사는 앞서 지난 10일, 공무원 대상 재외동포 이해교육 콘텐츠에도 출연했다.

EBSi '한국사 강의', KBS '역사저널 그날', tvN '벌거벗은 한국사' 등 다양한 방송에서 활동해온 그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재외동포를 더 가깝고 따뜻하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

재미동포 미셸 강, 프랑스 프로축구 리옹도 이끈다

리그1 명문 구단 강등 항소 진두지휘…여성 스포츠 혁신가로 주목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이자 여러 프로축구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미셸 강 회장.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이자 여러 프로축구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미셸 강 회장이 프랑스 프로축구 올랭피크 리옹의 새 회장 자리에 앉았다.

AP 통신은 최근 "강 회장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일곱 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리옹의 회장직을 맡게 됐다"고 보도했다.

강 회장은 글로벌 방위산업체인 노스럽 그러먼 인포텍의 부회장과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하다 2008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공공부문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 코그노산트를 창업한 사업가다.

그는 11대, 13대 국회의원으로 여성 권익 신장에 이바지한 이윤자 전 의원의 딸로, 서강대 재학 중인 1981년 유학길에 올라 사업가로 성공했다.

2001-2002시즌부터 일곱 시즌 연속 리그1 정상을 밟은 리옹은 재정 규정을 위반해 다음 시즌 리그2(2부 리그)로 강등됐다.

존 텍스터 회장이 사임하면서 새 회장에 오른 강 회장은 강등 징계에 대한 항소를 진두지휘한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UWCL) 8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프랑스)을 인수했다. 앞서 2023년부터는 리옹 이사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여자축구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강 회장은 2022년 2월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워싱턴 스피릿 인수를 시작으로 2023년 잉글랜드 여자 챔피언십(2부) 런던시티 라이어니스,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 등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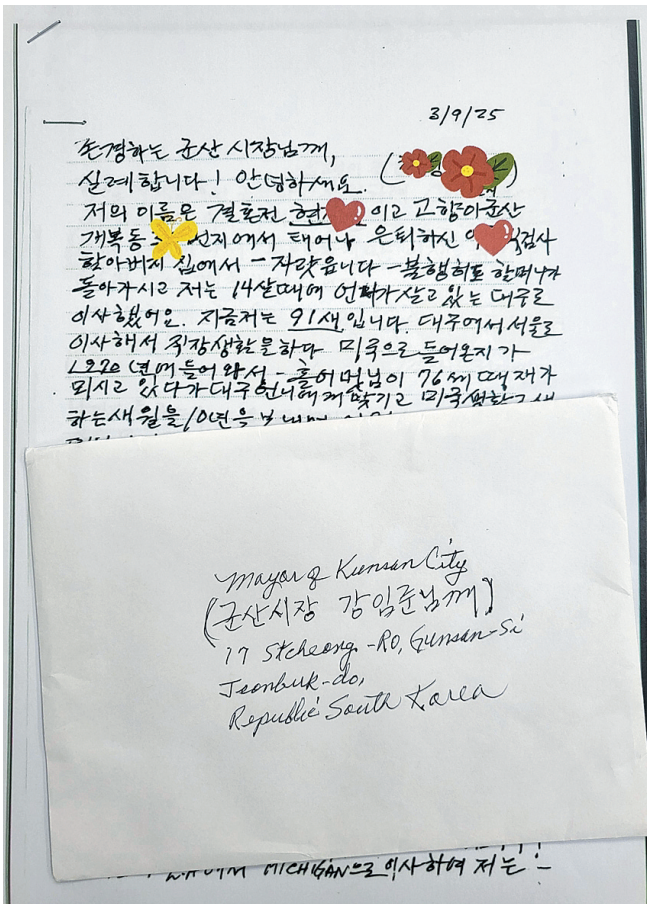
또 지난해 7월엔 여자축구 프로화에 중점을 둔 세계 최초의 멀티구단 글로벌 조직 '키니스카 스포츠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어 작년 11월엔 미국축구협회 여성 및 유소녀 프로그램에 역대 최고액인 5년간 3천만달러(약 418억원)를 기부한다며 "여성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장 안팎에서 여성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강 회장의 재산을 12억달러(1조6천200억원)로 추산했다. 창

“고향 군산 그리워”…미국서 온 91세 할머니 손편지

애틋한 재미동포 사연에 강임준 시장 ‘관광 책자’ 등 동봉 답장



재미동포가 보내온 손편지

“6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 군산이 눈물 나게 그립습니다.”

고향인 전북 군산을 떠난 지 70여년이 지난 91세 재미동포 할머니의 그리움 가득한 손편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콜로라도에 거주 중인 현 모 할머니다.

현 할머니는 지난 3월 군산시 개복동이 고향이라고 밝히며 강임준 군산시장 앞으로 직접 손편지를 보내왔다.

현 할머니는 편지에서 “14살까지 군산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 직장생활을 했고,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며 “6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 군산이 눈물 나게 그립다”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다.

특히 현 할머니는 “유튜브를 통해 ‘군산 꽁당보리축제’에서 군산 출신 가수 김성환 씨의 공연을 본 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렸다”면서 강 시장에게 초등학교 친구들의 안부를 물었다.

강 시장은 현 할머니의 편지를 받자마자 직접 손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냈다. 강 시장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보내주신 애틋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군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책자와 관광안내 자료를 함께 보냈다.

이에 현 할머니는 올해 6월 강 시장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 할머니는 “이토록 반가울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참 정이 많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자신과 가족사진, 그리고 콜로라도의 자연을 담은 엽서까지 함께 보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한번 전했다.

강 시장은 “손편지를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해외 동포와 군산의 따뜻한 교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통해 고향 군산에 대한 자긍심과 유대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4일: **고려인 청소년과의 대화**
- 14일: **재외동포청–한국정치학회 공동 리셉션**
  2025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회식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제주)
- 19일: **2025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폐회식**

재외동포청 공지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가자 모집

11월 인천 · 부산서 열려…8월 1일까지 신청 접수, 총 75명 초청

재외동포청은 해외 입양동포의 정체성 회복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과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18세 이상 해외 입양동포 중 입양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75명을 초청한다. 신청 마감은 8월 1일까지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입양동포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체성과 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밟는다. 둘째 날에는 정보 제공 세션과 개회식, 환영오찬이 열리며, 입양동포 단체 간의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각국 단체장들의 포럼과 지역 그룹별 분임토의가 마련되며, 이어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산업시찰이 이어진다. 넷째 날에는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 마지막 날에는 폐회식과 환송 오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참가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는 1단계와,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재외동포청에 송부하는 2단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유효하다.

신청자는 참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다큐멘테이션 릴리즈 동의서, ▲면책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예방접종 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첨부할 수 있다.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서류 심사는 관할 공관이 7~8월 중 1차 검토를 진행한 뒤, 재외동포청의 심의위원회가 8월 중 최종 선발을 결정한다. 선발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항공권은 본인이 직접 예약해야 한다.

특히 입양 이후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동포, 한국 정부가 시행한 모국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신청자, 그리고 관할 공관의 추천 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들의 모국 방문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각국에서 형성된 입양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1. 일상 생활 중에

점검하고

집 근처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2. 산사태 발생 우려 시

대비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PC), '스마트산림재난' 앱(스마트폰)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산사태 발생 시

대피하고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4. 산사태 발생 후

신고하세요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소방서(119)에 신고하세요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국민행동요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앱에서 확인하세요.

산림청

광복 80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광복 80년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光復